



2026 VISION

#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 가정

### 하나님께 여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 성경이야기

여러분은 기다리던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생일선물이나 갖고 싶던 장난감을 받으면 정말 기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쉽지 않아요. 너무 소중해서 꼭 내 곁에 두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얻은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라게 한 뒤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장면은 참 놀라워요. 한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아이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렸어요. 이것은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린 순종이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가족, 시간, 건강, 재능,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건 내 거야!”하고 붙잡고 싶어 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